

## 간호대 여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에 관한 연구

박경\* · 최순희\*\*†

\*목포 카톨릭 대학교 시간 강사 · \*\*전남대학교 교수

### Drinking-related knowledge, attitude and drinking behavio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Gyung Park\* · Soon Hee Choi\*\*†

\*Mokpo Catholic University, Part-time Lectur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rofessor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drinking-related knowledge, attitude and drinking behaviors of 244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 city.

**Methods:** This is descriptive research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7th to October 10th, 2010 after obtaining the informed consent from the participants and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The drinking-related knowledge score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ade and club activities. The drinking-related attitude score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source of income. Drinking behavior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school record and club activities. Regar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behaviors and drinking-related knowledge or attitude.

**Conclusion:** The drinking-related knowledge score of freshmen or the students involved in club activities was the lowest, and the higher the drinking-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were, the higher the drinking behaviors were. Therefore, appropriate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need to be implemented to freshmen or in middle and high school repeatedly.

**Key words:** Female college student, Drinking-related knowledge, Drinking-related attitude, Drinking behavior

---

접 수 일 : 2012년 2월 9일, 수 정 일: 2012년 4월 16일, 채 택 일: 2012년 4월 23일  
† 교신저자 : 최순희 (501-746 광주광역시 동구 학1동 5번지)  
Tel: 062-220-4345, Fax: 062-227-4009, E-mail: sh3749@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으므로 이때 발생하는 건강문제는 그들 일생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은 성인으로 인식되어 음주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일생 중에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시기가 대학시절이며, 대학생들은 같은 연령대의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술을 마시고 특히 폭음과 과음을 많이 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O'Malley와 Johnson, 2002). 대학사회에서 형성되는 음주습관이나 태도가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까지 이런 습관이 계속되어 결국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음주문화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천성수, 2002).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10명중 9명이 술을 마시고 있으며(천성수 등, 2000; 이원재 등, 2001), 또한 하루 소주 5잔 또는 맥주 6잔 이상을 마시는 여학생은 52.0%에 이르고 있고, 한 달에 1번이상의 음주율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송지영, 2008)들을 통해서 남녀 구별 없이 거의 모든 행사 후에 접하게 되는 것이 알코올이고 술을 과시하고 권하는 음주문화가 대학 내에서 만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바커스(BACCHUS-Korea,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2008)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대학생 중 52%가 술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았고, 술값으로 인하여 47%가 경제적인 곤란을 느낀 적이 있을 정도로 음주가 공부하는 학생 개인은 물론 사회와 인류에 미치는 폐해는 매우 크므로 이들의 음주예방과 금주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조

성기, 2009).

특히 여성의 경우 과음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남성보다 빠르고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체내 수분이 적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시고도 남성보다 쉽게 취하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뇌, 위장 및 간의 손상을 더 쉽게 받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호르몬의 합성, 대사나 조절에도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음주자의 경우 유방암의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생리통, 생리불순, 조기폐경, 불임, 자연유산, 태아성 알코올 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 등을 초래할 수 있다(김희경 등, 2004).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음주관련문제는 주로 사고성 형태로 나타나 폭행, 강간 등의 사건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 중 여대생의 음주 후 성추행 또는 성폭행 피해 경험율이 7.5%로 나타나(박종순, 2000)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여대생은 성인 초기에 있는 여성으로 자칫하면 불규칙적인 건강습관과 잘못된 건강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며 미래의 어머니로서 음주에 대한 태도 및 실천이 자신 뿐 아니라 자녀와 가족까지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이경희A, 2004) 이들의 음주예방이나 단주를 위한 교육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대생들의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이나 태도(정술기, 2006; 홍순명 등, 2006; 송지영, 2008) 및 문제성음주 인식도(장승욱, 2001)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보고들이 있고, 극소수의 음주행위관련 결과들(신완철과 김혜경, 2001; 김종운, 2007)만 찾아볼 수 있을 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 정도와 이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간호대 여학생들의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

주행위 정도와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음주 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 정도와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 정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대상은 G시 지역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 학생 총 287명중 남학생을 제외한 여학생 전원 244명으로 하였으며, 연구자들이 자료 수집을 위해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에 걸쳐서 먼저 해당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받은 후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에게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음주관련 지식 측정도구

음주관련 지식은 송지영(200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음주에 대한 일반 상식 5문항, 숙취해소관련 3문항, 알코올의 영양가치 2문항, 음주관련 질병 4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서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점 처리하여 점수범위는 0-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 .60$ 이었다.

#### 2) 음주관련 태도 측정도구

음주관련 태도는 제갈정(2001)이 개발한 한국인의 음주실태 평가 도구 중 음주관련 태도에 관한 10문항을 이경희B(2004)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정 1점에서 긍정 5점 척도로서 총 5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이경희B(2004) 연구의 Cronbach's  $\alpha = .78$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 3) 음주행위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음주행위를 음주횟수와 음주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난 한달 동안 한잔 이상 마신 음주횟수와 한 번에 마시는 술의 양을 표준잔으로 계산한 1회 평균 음주량으로 측정하였다. 표준 잔의 정의는 포함된 알코올 함량을 기준으로 소주 1병=7잔, 맥주 큰 병=2.5잔, 맥주 중간 병=2잔, 캔/맥주 작은 병=1잔, 막걸리 1병=4.5잔, 청하 1병=3.5잔으로 계산하였다(임경미와 김수진, 2002).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 정도는 기술적 통계를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

행위 정도의 차이검정은 t-test, ANOVA 그리고 scheffe'test를 하였다.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 정도간의 관계분석을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논의

#### 1.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2학년 26.6%, 1학년 25.8%, 3학년 24.2%, 4학년 23.4%였고, 주거형태는 자택이 61.0%로 가장 많았고 자취와 기숙사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4)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학년	1학년	63(25.8)
	2학년	65(26.6)
	3학년	59(24.2)
	4학년	57(23.4)
주거형태	자택	149(61.0)
	자취	48(19.7)
	기숙사/하숙	47(19.3)
술을 맨 처음 마신 시기	초등학교	7(2.9)
	중학교	55(22.5)
	고등학교	65(26.6)
	대학교	117(48.0)
흡연	유	3(1.2)
	무	241(98.8)
종교	유	99(40.6)
	무	145(59.4)
수입원	부모의존	124(50.8)
	아르바이트	28(11.5)
	둘다	92(37.7)
지난학기 성적	3.5미만	61(25.0)
	3.5~4.0미만	115(47.1)
	4.0이상	68(27.9)
동아리활동	유	185(75.8)
	무	59(24.2)
음주경험	유	237(97.1)
	무	7(2.9)

또는 하숙이 39.0%를 차지하였다. 첫 음주 시기는 대학교가 4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 26.6%, 중학교 22.5%의 순이었다. 흡연을 하지 않는 군이 98.8%였고, 종교가 없는 군이 59.4%, 있는 군이 40.6%였다. 수입원에서 50.8%가 '부모님께 의존 군'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모님께 의존 군'과 '아르바이트군' 둘 다 37.7%였다. 지난 학기 성적은 3.5~4.0 미만 군이 47.1%, 4.0이상 군 27.9%, 3.5미만 군이 25.0% 순이었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군이 75.8%였으며 대상자의 97.1%가 음주경험이 있었다<표 1>.

##### 2)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 정도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점수는 최소 1점, 최대 14점으로 평균 10.1점이었고, 태도점수는 최소 10점, 최대 41점으로 평균 27.5점이었다. 대상자가 지난 한달 동안 한잔 이상 마신 횟수는 최댓값이 20회이었고 평균은 3.1회이었고, 한 번의 술자리에서 마신 잔 수는 최댓값이 58잔이었고 평균 11.1잔이었다<표 2>.

<표 2>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 정도

변수	척도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음주 지식	0-14	1	14	10.1±2.11
음주 태도	10-50	10	41	27.5±5.87
음주 행위	한잔이상 마신 횟수/월	0	20	3.1±2.78
	마신 술잔의 수/회	0	58	11.1±8.37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 정도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점수는 학년(F=9.09, p=.000)과 동아리 활동 유무(F=6.51, p=.01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상자 중 동아리 활동을 하는 군이 하지 않는 군보다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 지식정도에 대한 사후검증을 한 결과에서는 1학년의 지식이 평균 9.0점으로 2학년 10.1점, 3학년 10.6점, 4학년 10.7점보다 각각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음주태도 점수는 수입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 $F=3.06, p=.049$ )가 나타나 사후검증을

한 결과 부모의존 군이 아르바이트 군이나 둘 다인 군보다 유의하게 더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흡연 군이 비 흡연 군보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각각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었으나, 학년, 주거형태, 첫 음주 시기, 흡연, 종교, 성적 및 동아리 활동 변수들에 따른 태도점수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정도

변수	구분	지식		태도	
		M±SD	F or t(p)	M±SD	F or t(p)
학년*	1학년	9.0±1.92 <sup>a</sup>	9.09 (.001)  a<b,c,d,	26.5±5.46	2.17 (.096)
	2학년	10.1±2.42 <sup>b</sup>		27.3±5.81	
	3학년	10.6±1.97 <sup>c</sup>		29.1±5.79	
	4학년	10.7±1.58 <sup>d</sup>		27.3±6.29	
주거형태	자택	10.1±1.90	0.16 (.856)	28.0±5.68	1.47 (.232)
	자취	9.9±2.53		26.3±6.07	
	기숙사/하숙	10.1±2.29		27.7±6.21	
첫음주시기	초등학교	8.9±2.34	0.83 (.478)	27.0±5.71	2.10 (.101)
	중학교	10.1±2.16		28.8±6.27	
	고등학교	10.1±2.18		28.2±6.18	
	대학교	10.2±2.03		26.6±5.42	
흡연	유	10.0±3.00	0.22 (.639)	33.3±6.42	1.73 (.086)
	무	10.1±2.10		27.5±5.85	
종교	유	10.0±1.87	3.38 (.067)	26.7±6.59	-1.81 (.072)
	무	10.2±2.26		28.1±5.28	
수입원*	부모 의존	10.28±1.91	0.47 (.626)	26.7±6.23 <sup>a</sup>	3.06 (.049)
	아르바이트	10.3±2.03		27.3±4.87 <sup>b</sup>	
	둘다	9.9±2.38		28.7±5.51 <sup>c</sup>	
지난학기 성적	3.5미만	9.8±2.17	1.27 (.282)	27.4±5.92	0.06 (.946)
	3.5~4.0미만	10.3±1.98		27.7±5.88	
	4.0이상	10.0±2.25		27.4±5.90	
동아리활동	유	10.2±1.94	6.51 (.011)	27.6±5.96	0.42 (.672)
	무	9.9±2.57		27.3±5.65	

\*scheffe' test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행위 정도

대상자가 지난 한달 동안 한잔이상 마신 횟수는 일반적 특성 중 술을 맨 처음 마신시기 (F=5.07, p=.002), 수입원((F=3.57, p=.030), 지난 학기 성적(F=4.73, p=.010) 및 동아리활동 유무 ((F=7.29, p=.00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아리 활동 군이 평균 3.4일로 비활동 군 1.9일 보다 높게 나타났고, 술을 맨 처음 마신시기와 지

난 학기 성적에 대한 사후검증을 한 결과 중학교 때 마신 군이 평균 4.2일로 대학교 때 마신 군의 2.5일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학기 성적이 3.5미만 군이 3.9일로 4.0이상 군 2.4일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분석에서 3군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부모의존 군 (2.7일)이 아르바이트군(3.9일)이나 둘 다(3.5일) 군보다 더 적게 마시는 경향을 보였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행위 정도

변수	구분	한잔이상 마신 횟수/월		마신 잔의 수/회		
		M±SD	F or t(p)	M±SD	F or t(p)	
학년	1학년	2.9±2.60	0.51 (.674)	9.3±6.65	1.73 (.162)	
	2학년	3.3±3.25		12.7±9.73		
	3학년	3.2±2.92		11.4±6.92		
	4학년	2.8±2.23		10.8±9.53		
주거형태	자택	3.4±2.94	1.45 (.235)	10.8±8.17	0.01 (.985)	
	자취	2.9±2.76		11.1±7.70		
	기숙사/ 하숙	2.6±2.19		11.2±9.73		
첫 음주 시기*	초등학교	3.4±3.15 <sup>a</sup>	5.07 (.002)	8.7±5.21	1.07 (.363)	
	중학교	4.2±3.66 <sup>b</sup>		12.7±10.01		
	고등학교	3.4±2.69 <sup>c</sup>		d<a,b,c		10.3±6.45
	대학교	2.5±2.14 <sup>d</sup>		10.8±8.59		
흡연	유	4.7±3.05	0.04 (.827)	13.8±8.80	0.58 (.563)	
	무	3.1±2.78		11.0±8.38		
종교	유	2.8±2.46	1.24 (.267)	9.4±7.18	-2.59 (.010)	
	무	3.4±2.97		12.2±9.94		
수입원*	부모의존	2.7±2.32 <sup>a</sup>	3.57 (.030)	10.9±8.73	0.19 (.824)	
	아르바이트	3.9±4.17 <sup>b</sup>		a<b, c,		11.9±11.15
	둘다	3.5±2.77 <sup>c</sup>		10.8±6.84		
지난학기 성적*	3.5미만	3.9±3.82 <sup>a</sup>	4.73 (.010)	12.9±9.55 <sup>a</sup>	3.26 (.040)	
	3.5~4.0미만	3.2±2.39 <sup>b</sup>		11.1±8.21 <sup>b</sup>		
	4.0이상	2.4±2.06 <sup>c</sup>		c<a,b		9.2±7.14 <sup>c</sup>
동아리활동	유	3.4±2.92	7.29 (.007)	12.2±8.65	4.06 (.001)	
	무	1.9±1.92		7.3±6.10		

\*scheffe' test

대상자가 한 자리에서 마신 술잔의 수는 종교 ( $t=-2.59, p=.010$ ), 지난 학기 성적( $t=3.26, p=.040$ ), 동아리활동 유무( $t=4.06,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가 없는 군이 평균 12.2잔으로 종교가 있는 군의 9.4잔보다 높게 나타났고, 동아리 활동 군이 12.2잔으로 비활동 군의 7.3잔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학기 성적에 대한 사후검정을 한 결과 3.5미만 군이 평균 12.9잔으로 4.0 이상군의 9.2잔보다 더 많이 마신 것( $p=.041$ )으로 나타났다<표 4>.

**5)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의 관계**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 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식정도는 음주행위로 측정 한 한잔 이상 횟수/월( $r=0.14, p=.027$ )나 한 자리에서 마신 술잔의 수( $r=0.16, p=.011$ )와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태도정도 또한 한잔이상 횟수/월( $r=0.28, p=.001$ )나 한 자리에서 마신 술잔의 수( $r=0.26, p=.001$ )와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5>.

<표 5>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의 관계

변수	태도 r(p)	한잔이상 마신 횟수/월 r(p)	마신 술잔의 수/회 r(p)
지식	0.09(.156)	0.14(.027)	0.16(.011)
태도	1	0.28(.001)	0.26(.001)

**2. 논의**

본 연구는 여성의 음주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국민 건강관리를 책임질 간호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대생의 음주 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 행위정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대상자의 음주율은 97.1%로 대학생의 음주율인 미국 74%(Wechsler 등, 2000), 홍콩

72.6%(Leung과 Arthur, 1999), 우리나라 19세 이상 남자 성인의 월간 음주율 77.8%나 여자 43.3%(보건복지부, 201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또한 여대생의 음주율을 보고한 정슬기(2007)의 93.5%, 이경희A(2004)의 90.6%, 한금선 등(2003)의 92.3%, 신원철과 김혜경(2001)의 95%과 4년제 전국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원재(2003)의 89.6%, 김옥수와 김계하(2000, 2001)의 83.9%, 85.2%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 여대생 음주가 갈수록 증가하고 심각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대상자와 동일한 간호대 학생들의 음주율인 92.43%(한금선 등, 2003)나 조유향 등(2004)의 한·일 간호학생 64.2%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 간호 대학생들도 음주문화가 만연되고 있는 대학사회의 심각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으므로 미래의 건강관리에 종사할 이들의 음주관련 요인분석과 아울러 음주예방 및 금주교육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점수는 평균 10.1점으로 송지영(2008)의 남·여 대학생 7.9점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대상자가 간호학 전공인 여대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태도 점수는 평균 27.5점으로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경희B(2004)의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 실시 전 18.1점, 실시 후 16.9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중학생보다도 대학생이 되면 음주환경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의 음주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쉽게 음주행위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기교육을 통해 음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음주행위로 측정된 지난 한 달 동안 한잔 이상 마신 횟수는 평균 3.1회였고 한 번의 술자리에서 마신 잔 수는 평균 11.1잔으로 나타나, 김승수와 정슬기(2009)의 2006년 횟수 4.4회와 잔 수 5.5잔, 2008년 횟수 4.5회와 잔 수 6.1잔으로 나타난 결과에 비교해보면 본 대상자가 술 마신 빈도는 작으나 마신 잔 수는 여성임에도 불

구하고 거의 2배정도의 음주량으로 여대생들의 높은 폭음 율을 보여주고 있어 폭음으로 인한 여성의 음주문제 발생이 크게 우려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관련 지식 점수는 1학년생이 2, 3, 4학년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고 저학년일수록 음주지식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대학생이 학기 초에 음주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행사인 신입생 환영회, MT, 학과행사 등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김승수와 정슬기, 2009)을 감안하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음주예방교육을 통해 이들의 지식 정도를 높여주어야 절주나 금주에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군이 하지 않는 군보다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나 음주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통로가 다양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천성수 등(2002)은 음주예방을 위한 홍보·교육프로그램 운용 평가에서 '교양강좌', '공동체플', '1학년 절주교육채플', '소그룹리더에 의한 교육', '학술대회' 그리고 홍보교육을 위한 '절주 소식지', '교내방송-학보기사', '절주실천서명', '리플렛', '포스터', '홈페이지 게시판', 'e-mail 홍보'가 절주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학생의 음주율 특히 여대생의 음주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학 당국의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관련 태도 점수는 수입원 즉 부모의존 군이 아르바이트 군이나 둘 다인 군보다 음주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흡연 군이 비 흡연 군보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각각 음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었는데 이런 결과는 용돈이 더 풍부하고 아르바이트 환경에 노출된 학생이 음주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부모의 간섭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음주에 대해 더 허용적이므로 이들의 음주태도

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본다.

본 대상자의 한 달 동안 한잔 이상 마신했수로 측정한 음주행위가 일반적 특성 중 학년과 종교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고, 첫 음주시기, 수입원, 지난학기 성적 및 동아리 활동유무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미옥(2008)의 연구에서 학년과 종교유무에 따라 문제음주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동아리 활동 군이 비활동 군보다 문제음주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던 것과 일치된 결과로서 대학 동아리모임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음주환경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첫 음주시기가 중학교 때인 군이 대학교 때인 군보다 마신했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녀 대학생의 음주 시작 연령이 19세 이하 군이 20세 이상군보다 문제음주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들(김승수와 정슬기, 2009; 김미옥, 2008; 이경희A, 2004)과 일치된 것으로 초·중등학교 때부터 음주예방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대상자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마신 술잔 수는 종교나 동아리활동 유무 그리고 지난학기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가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음주량이 더 많았는데 박중순(2000)의 의존 음주 율이 불교신자나 무교인 자가 기독교나 천주교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지난학기 성적 3.5미만 군이 4.0이상군보다 술잔 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점별 음주량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음주할 기회가 많아 학점관리가 소홀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대상자의 음주관련 지식이나 태도가 모두 음주행위와 매우 낮은 상관을 보인 결과는 선행 결과가 없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대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주지식수준은 더 높았고 음주 율은 더 낮게 나타났던 송지영(2008)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음주관련지



식이 많을수록 음주행위가 많았던 결과는 지식 정도에 상관없이 음주 환경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술을 마시게 되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대상자의 과반수정도가 대학교에서 첫 음주를 시작했고 1학년의 음주 지식이 낮았으므로 여대생들을 위한 음주지식 향상 전략(천성수 등, 2002)을 통해 음주예방과 날로 심각해지는 음주 율 감소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과반수 이상은 음주가 습관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은 물론 자각증상으로 본 건강상태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조유향 등, 2004), 대부분의 여대생은 문제음주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학교나 사회적인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서 문제음주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원재, 2004). 미국의 경우 대학당국에서 음주예방정책을 실천하는 대학의 폭음자 비율이 1%인 반면, 대책이 미비한 대학의 대학생 폭음자 비율은 최고 76%까지 이르고 있는 점(Wechsler 등, 2000; 김승수와 정슬기, 2009 재인용)을 볼 때 대학 내 학칙을 통한 캠퍼스 내의 금주를 규정하고, 대학 내에 술 광고 금지, 대학 행사시 술을 제공하는 등의 관측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대학당국의 음주예방정책과 국가적인 일관된 정책(김승수와 정슬기, 2009) 등 복합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대학 내 음주문화를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IV. 결 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간호대 여학생 244명을 대상으로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 정

도와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이용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 여학생들의 음주율이 97.1%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특히 음주관련 지식 점수가 낮았던 동아리 비활동군과 1학년생의 음주지식을 높이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음주관련 긍정적인 태도를 변화시켜야 하며, 성적 하위군과 동아리 활동군의 음주횟수나 음주량을 감소시켜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교 신입생에게 음주지식을 높이고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음주예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동아리활동 시 절주나 금주를 통해서 학업이 장애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대상자의 음주관련지식이 많을수록 음주행위가 많았던 결과를 통해 지식정도에 상관없이 음주환경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음주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 변인들 이외에 이들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와 아울러 일반 여대생과의 비교연구나 표본수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해서 이 변인들간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김희경, 최은숙, 안정선. 여대생의 음주행위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2004;10(2):205-216.
2. 김미옥. 대학생 음주 정도와 그 관련 요인[석사학위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8.
3. 김계하, 김옥수. 남녀대학생들의 우울과 음주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과학 2000;12(1):43-53.
4. 김옥수, 김계하.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흡연에 대한 비교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001;13(3):363-372.
5. 김승수, 정슬기. 대학생 음주실태와 문제음주 변화추이 2006년과 2008년 비교. 한국알콜과

- 학회지 2009;10(2):75-88.
6. 김종운. 음주예방 집단 상담이 대학생의 음주거절 효능감과 음주결과 기대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 연구 2007;8(1):115-130.
  7.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2010.
  8. 박종순. 대학생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000; 26(4):393-413.
  9. 송지영. 대학생들의 음주관련 인식, 음주실태 및 건강관리습관과의 관련성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10. 신완철, 김혜경. 울산지역 여대생의 음주행동에 관한 조사. 생활과학논문집 2001;3(1):31-42.
  11. 이경희A. 여대생의 음주량과 음주 관련 문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4.
  12. 이경희B.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13. 이원재. 대학생의 음주양태. 보건과 사회과학 2001;10:79-95.
  14. 이원재. 대학생 문제음주 관련요인. 보건교육·보건증진학회지 2003;20(3): 109-124.
  15. 이원재.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관련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004;15:223-250.
  16. 임경미, 김수진. 음주예방프로그램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음주거절자기효능과 음주 결과 기대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002; 11(4).
  17. 장승욱. 대학생 음주행위와 문제음주 인지도의 추이, 1996-2000. 청소년학 연구;20018(2): 259-278.
  18. 정슬기. 대학생의 한국음주문화에 대한 인식과 음주태도가 위험음주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콜과학회지 2006;7(2):1-16.
  19. 정슬기. 여자 대학생의 문제음주 영향요인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07;27:176-198.
  20. 조성기. 한국인의 음주문화. 바커스. 2009.
  21. 조유향, 김명순, 장홍천혜. 한·일 간호대학생의 음주가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음주학생과 비음주학생간의 비교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4;18(2):286-298.
  22. 제갈정. 한국인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1.
  23. 천성수, 이주열, 이용표, 박종순. 대학사회의 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개발. 한국알콜과학회지 2000;2(1):67-114.
  24. 천성수. 대학생폭음의 원인과 음주관련문제 분석. 한국알콜과학회지 2002;3(2):221-233.
  25. 천성수 외 7명. 대학생 문제음주예방을 위한 홍보·교육프로그램의 운용과 평가. 한국알콜과학회지 2002;3(1):53-86.
  26. 한금선, 양승희, 전경구.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가 여대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음주 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03;8(3):565-579.
  27. 홍순명, 양정아, 정순임, 조지예. 울산시 남녀 대학생들의 음주행태와 인식조사 및 비교연구. 울산대 생활과학논문집 2006;7(2):63-75.
  28. Leung, S.F, & Arthur,D.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Validation of an instrument for enhancing nursing practice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1999; 37:57-64.
  29. O'Malley, PM and Johnson, LD. Epidemiology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2002; supplement 14:23-39.
  30. Wechsler, H., Kuo, M., Lee, H., & Dowdall, G. W. Environmental correlates of underage alcohol use and related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00;19(1):24-29.